인민이 반기고 환호하는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첫 실체들인 지방공업공장들이 각지에서 련이어 일떠서 그 준공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선

2025 2

(825)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 중요무기체계시험 진행

특 집

4 ‖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2월 8일

12 ‖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여

소 식

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 진행

24 ‖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첫 실체들

- 숙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경성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은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연탄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구장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우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오늘의 조선

42 ‖ 대건재생산기지의 증산열풍

48 ‖ 단천제련소

50 ‖ 미래를 가꿔가는 원예사들로

54 ‖ 행복의 요람과 고운 꿈

58 ‖ 마식령에서의 스키관광

64 ‖ 호평받는 《류원》운동신발

66 ‖ 보통강반의 이채로운 풍경

68 ‖ 려명꿩고기료리전문식당

체 육

70 ‖ 세계적인 무도관할기구

력사, 문화

74 ‖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옷차림풍습

76 ‖ 력사유적 보통문

표 지: 연탄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뒤표지: 금강산 비로봉의 아침 사진 김성철

편 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승 룡, 리금주

20

24

42

50

58

중요무기체계시험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기체계시험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1월 25일 해상(수중)대지상전략순항유도무기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무기체계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기체계시험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김정식대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대장이 동행하였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싸일들은 7 507～7 511s간 1 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중요무기체계시험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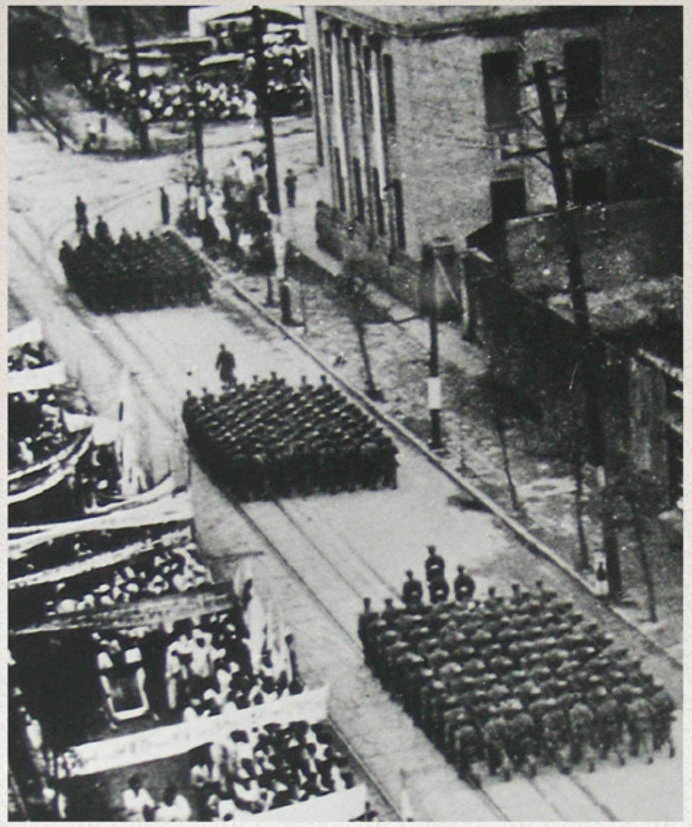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의 전쟁억제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여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싸일들은 7 507～7 511s간 1 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2월 8일

1948년 2월 8일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



1948년 2월 8일은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뜻깊은 날이다.

지난날 변변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는것은 일일천추 바라던 간절한 소망이였다.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숙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비로소 성취되였다.

일찌기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그이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직후인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새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정규화된 군대를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후과로 국고는 텅 비여있었고 나라의 경제토대는 령이나 다름없는 당시의 형편에서 자체의 힘으로 정규군대를 건설한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다.

조선인민군창건 경축열병식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8년 2월

조선항공협회 신의주지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5년 11월

평양학원개원 경축열병대오를 사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6년 2월

정규무력건설경험도 없었고 군사정치간부도 부족하였으며 군사장비를 생산보장할만한 물질기술적토대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정규적혁명무력건설로선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의 신념과 배짱으로 그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시며 참다운 인민의 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인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내오도록 하시고 각지에 정규무력의 핵심부대인 보안간부훈련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항일의 불길속에서 키워낸 혁명투사들을 파견하시여 각 군종, 병종의 모체부대를 꾸리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민군대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9년 5월

중앙보안간부학교 학생들의 사격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7년 10월

그리하여 1946년 6월 해군무력의 핵심부대인 수상보안대가 조직되고 1947년 8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비행대가 나오게 되였으며 포병, 땅크병, 공병, 통신병 등 정규무력의 여러 병종부대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자립적병기공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립적병기공업을 건설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1945년 10월초 평양시 평천리에 나가시여 주체적인 병기공업창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1947년 6월 첫 병기공장창설이 선포되고 10월초에는 자체의 힘으로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생산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으로 시험사격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8년 12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기관단총을 간부들에게 수여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9년 10월

기계화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50년 5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2월 8일 우리 나라의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튼튼한 무력적담보를 가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세계에 당당히 등장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던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1950년-1953년)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것을 기화로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던 지난 세기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글 박경철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여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행로에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혁명령도의 전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을 사회주의위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중엽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한것을 기화로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거세하려고 책동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자취가 어려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조직진행하시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전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9년 3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 기간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0년 3월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인민이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힘의 원천으로 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전국도처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온 나라가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되게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를 비롯한 혁명적구호들을 제시하시여 인민들의 혁명열의를 북돋아주시였다.

백두의 넋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따라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인민의 심장속에 억세게 뿌리내리고 우리 사회의 면모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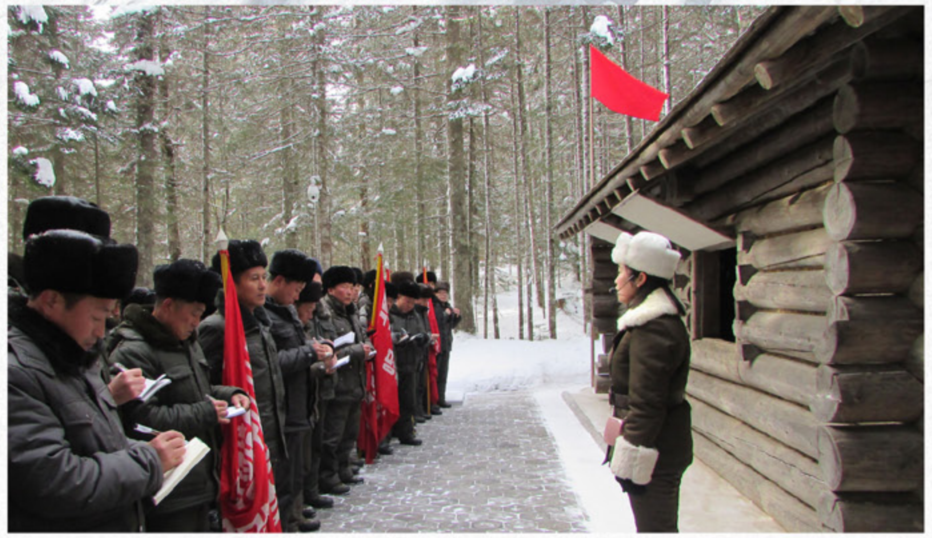
옥련산밀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1년 5월

고대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1년 5월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가 마련된 1960년대에 이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되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전성기가 펼쳐진 1970년대의 기적적인 사변들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구현해나가는 길에서 이룩되였고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아로새겨진 80년대속도도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이어받은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온 나라에 혁명전통계승의 열풍이 타번지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가장 엄혹했던 1990년대를 공화국의 력사에 기적적인 승리의 년대로 빛나게 아로새기였다.

200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 인민이 새 세기에도 혁명전통을 더욱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이처럼 백두의 혁명전통이라는 사상정신적재보를 가졌기에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엄혹한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조선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글 김선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 진행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받들고 당창건 80돐과 조국해방 80돐을 맞는 2025년을 당 제8차대회 결정들을 완결하고 더 높은 발전단계에로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는 경이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과감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력사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회의에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임명된 정부기관의 간부들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공화국헌법에 충실하고 당과 인민의 기대에 절대의 헌신으로 보답할것을 맹약하는 선서를 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박태성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에서는 내각이 지난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에 힘을 집중하면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휘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총화되였으며 5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인 올해에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부문별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내각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대의원들이 건설적의견들을 제기하였다.

내각총리 박태성대의원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리명국대의원이 하였다.

회의는 2024년 국가예산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당면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였으며 2025년 국가예산이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하여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민생활향상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의 전면적발전을 담보할수 있게 편성되였다고 인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가양식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상정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가양식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가양식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보고를 심의하고 헌법에 규제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여섯째 의정을 토의하고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폐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최고주권기관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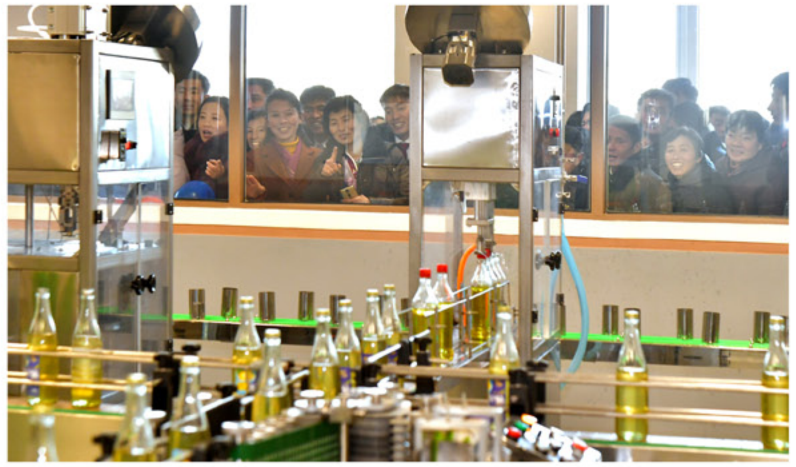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첫 실체들

새시대 지방발전의 활기찬 국면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국각지에서 지방공업혁명의 고귀한 실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준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2025. 1. 8.

숙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조선서해의 곡창지대에 지방공업의 새로운 발전모습을 떨치며 솟아난 멋쟁이공장들은 숙천군인민들의 생활에 따뜻한 활기를 더해주고 지역경제발전을 든든히 받침할 귀중한 재부이며 자기 고장에서 자기 손으로 더 좋은 미래를 안아올수 있다는 신심을 배가해주는 자랑찬 창조물이다.



2025. 1. 10.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지방중흥의 희한한 전변상이 펼쳐진 황해북도 은파군이
온 나라가 다 알고 부러워하는 복받은 군으로 전변되였다.

2025. 1. 12.

경성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굴지의 대규모온실농장을 제일먼저 일떠세워준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대소한의 추위에도 온실남새덕을 보고있는 조국의 북변 경성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 그 덕도 보게 되였다.

2025. 1. 14.

은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조선서해의 명승 구월산을 끼고있어 명산에 대한 자랑밖에 할수 없었던 은천군 인민들은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명상품, 명제품자랑도 할수 있게 되였다.

2025. 1. 16.

연탄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고려약자원이 풍부하고 단나무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연탄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이 일떠섬으로써 이곳 주민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뿌듯이 새겨안으며 새 생활을 향유하게 되였다.

렴포온실농장에서는 사계절 신선한 온실남새가,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갖가지 기초식품들과 당과류들, 질좋은 생활필수품들이 생산되여 함주군은 나날이 흥하는 고장으로 전변되고있다.

2025. 1. 18.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2025. 1. 20.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으로 유명한 온천군이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로 더욱 유명해지게 되였다.

2025. 1. 24.

구장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평안북도 구장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서 군인민들은 도시부럽지 않은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2025. 1. 25.

우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련이은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과 더불어 북방의 산간오지인 자강도 우시군에도 새 공장들이 일떠서 이곳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대건재생산기지의 증산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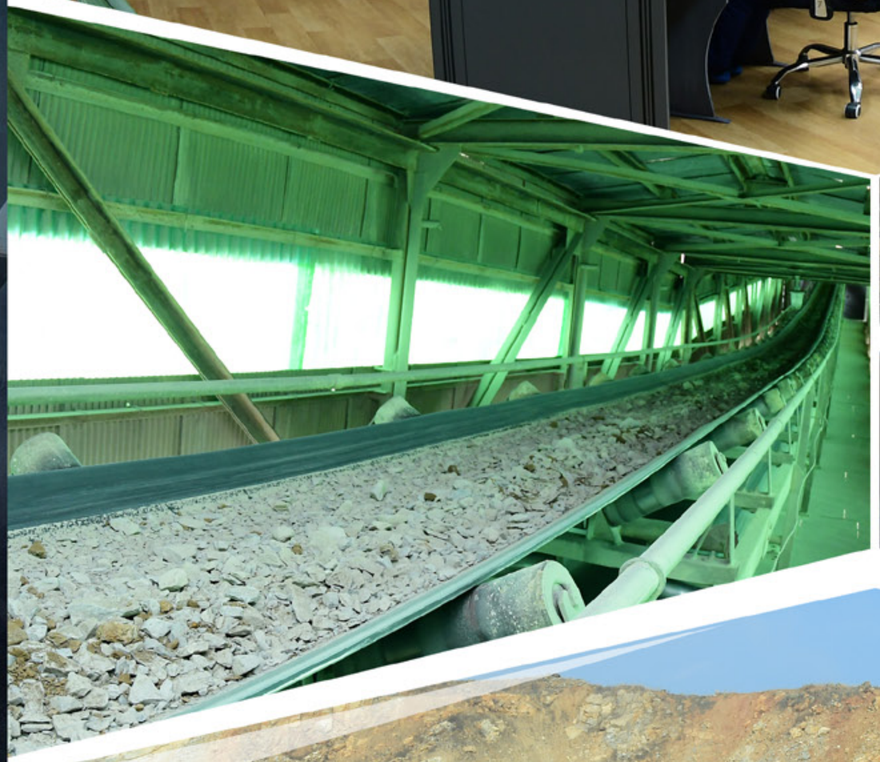
나라의 대건재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창건 80돐과 당 제9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증산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올해에도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건설과 함께 지방중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건설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게 된다.

혁명의 년대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온 상원로동계급은 올해에 지난해 증산한 량의 10배에 달하는 세멘트를 증산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것은 최근년간 조업이래 최고생산년도수준을 여러 차례 돌파한 련합기업소에 있어서 아름찬 과제이다.

조업이래 최고생산년도수준을 여러 차례나 돌파하고 올해에는 지난해 증산량의 10배나 되는 수십만t의 증산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존능력으로 방대한 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증산의 방도는 다름아닌 과학기술중시라는것을 다시금 새기고 월별, 일별, 교대별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맞게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그 실행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화천탄광 등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료, 연료매장지들을 확보하고 채굴 및 운반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선행공정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은 기본공정들에서의 생산적앙양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오늘의 조선】

세멘트생산의 기본공정인 소성직장의 소성공들은 주설비의 가동시간을 최대로 늘이는데 중심을 두고 설비관리를 보다 강화하면서 질좋은 크링카를 생산하고있다.

세멘트직장의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설비가동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여러건의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을 도입하였다.

조합원료직장, 분탄직장을 비롯한 각 직장의 로동계급도 생산물의 질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련대적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결과 련합기업소에서 새해 정초부터 매일 크링카생산량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5%, 세멘트생산량은 114%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상원의 로동계급은 올해의 증산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할 일념 안고 련대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사진 최원철, 라평렬
글 김선경

대규모 유색금속 생산기지

단천제련소

당창건 80돐이 되는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 안고 단천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현재 기업소에는 연, 아연을 비롯한 10여가지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정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최근년간 제련소에서는 과학기술이자 곧 생산이고 경제발전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생산공정들에 대한 정비보강계획을 실효성있게 하나하나 집행하여 제품의 질제고에서 현저한 진전이 이룩되고있다.

제련소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수백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들이 현실에 도입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준것은 기술집단의 비상한 정신력과 창조실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해마다 2차례에 걸쳐 일군들은 물론 연구사, 기술자, 로동자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중적인 생산공정기술지표보장을 위한 과학기술현상모집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제련소에서는 생산과제를 질량적으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데 작용하는 인자들을 제때에 분석하고 로력과 설비, 자금의 합리적리용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였다.

이렇게 최량화, 최적화의 원칙에서 과학적으로 타산된 기술혁신안들은 그후 경제적효과성이 뚜렷이 증명되였다.

지금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99. 98%이상의 고품질로서 어디서나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미래를 가꿔가는 원예사들로

평양교원대학은 평양시안의 소학교 교원들과 유치원교양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최근년간 평양교원대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손길 아래 교육수준과 규모에서 내외에 널리 자랑할만한 배움의 전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창립당시 수십명의 교원들로 첫 걸음을 뗀 교원대학은 지금 저명한 후보원사, 교수, 박사들을 포함한 백수십명의 교원력량을 가지고있다.

교육 및 생활환경이 완벽하게 꾸려진 대학에서는 시적인 규모에서 선발된 천수백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1968년 9월에 창립된 대학은 지난 기간 교원양성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여왔다.
평양교원대학에는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실현되여있다.

학생들은 지망한 학부들에서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본과과정을 마치게 되며 우수한 졸업생들은 박사원과정까지 거치고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교육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을 양성해내는 사범교육이다.

하기에 오늘 대학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면서 교육의 수준을 계속 높이고있다.

교육내용을 실용화, 세분화하여 여러개의 학과를 새로 내오고 수십개의 새 과목들을 개척하였으며 많은 새로운 교수방법들도 내놓았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한등급 높은 단계의 교육사업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교양원, 교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대부분 교실들이 전공실천실기교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교실들로 꾸려진 조건에서 학생들이 가상교수정황에서와 실지교수정황에서의 실기수업 등을 통하여 교육자적자질을 갖추도록 하고있다.

대학의 연구집단에서 개발한 수많은 교육프로그람들이 교수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초등교육부문에 대한 정연한 학술일원화체계가 확립된 평양교원대학은

전국의 교원대학들을 망라하는 학술연구 및 보급의 핵심단위이기도 하다.

오늘 착상이 새롭고 실효가 높은 대학의 새 교수방법들은 각 도, 시들의 교원대학들에 널리 보급되고있다.

사진 리철진, 손희연, 우정국
글 김선경

다방면적인 지식과 재능을 겸비한 미래의 교원들로 준비해나가고있다.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을 실용화, 세분화하여 여러개의 학과를 새로 내오고 수십개의 새 과목들을 개척하였으며 많은 새로운 교수방법들도 내놓았다.

행복의 요람과 고운 꿈

- 평성애육원을 찾아서 -

2016년 4월 평안남도 평성시 요람동에 평성애육원이 일떠서 준공한지도 어느덧 근 10년을 가까이하고있다.

애육원은 국가적부담으로 원아들을 보육교양하며 학교교육의 기초를 배워주는 학교전교육기관이다.

나라에서는 원아들을 위해 새옷과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용품들을 보내주고있으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빵, 고기, 우유, 과일, 당과류를 비롯한 갖가지 영양식품들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있다.

애육원에는 원아들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도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애육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개성적인 소질과 취미를 가진 원아들에게 여러가지 지능계발교육을 주고있다.

교양원들은 자신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여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들을 탐구도입하고있다.

그리고 항상 어린이들의 건강 및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첫자리에 놓고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영양음식들을 성의껏 해주고 성장발육에 좋은 놀이도 다양하게 조직하고있다.

늘 생기발랄하게 웃으며 노래부르는 원아들을 보며 원장 김려일은 《우리 원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원아들의 아버지, 학부형이 되시여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는 원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렵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진 황정혁
글 박병훈

마식령에서의 스키관광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인 마식령스키장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고있다.

눈부신 설경을 펼친 마식령의 산발에 행복넘친 인민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

말도 넘기 힘들어서 쉬여가는 령이라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마식령이 스키타기를 위주로 하는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로 전변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다.

해마다 마식령스키장은 겨울철을 맞으며 각지에서 온 스키애호가들과 근로자들, 야영생들로 련일 흥성이고있다.

스키장의 정점인 대화봉(1 363m)에서부터 각이하게 뻗어간 스키주로들을 경쾌하게 지쳐내리는 스키명수들과 애호가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모두의 감탄과 찬사를 자아내고있다.

그 광경에 혹하여 처음으로 스키기재와 복장을 갖추고나선 사람들도 당장 드넓은 스키장을 정복할듯 주로들에 나서 열심히 스키지팽이를 쥔 두팔을 내젓는다.

눈에는 익어도 손에는 설다고 실지 마음과는 다르지만 락심할것도 없다.

이곳의 봉사자들이 그들에게 준비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스키타기의 묘리들을 친절히 알려주기때문이다.

마식령 호텔

삭도를 타고 대화봉정점으로 줄줄이 오르면서 주변의 장쾌한 풍치에 환성을 터치는 사람들이며 썰매주로와 눈놀이장 등에서 기쁨에 겨워있는 청소년들…

심심산중의 매혹적인 설경에 희열과 랑만이 한껏 어린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어울려 독특하고 이채로운 풍경을 펼친 마식령스키장이다.

현대적인 스키장에서 한껏 몸을 달군 사람들은 이곳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훌륭히 솟아있는 마식령호텔의 봉사시설들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시간의 흐름을 잊고있다.

마식령에 펼쳐진 독특한 정서에 심취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인민의 모습과 더불어 스키장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있다.

사진 리광성, 우정국
글 박의철

호평받는 《류원》 운동신발

1988년 11월에 창립된 류원신발공장은 질좋은 운동신발들을 전문생산하는것으로 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있다.

최근에만도 자동재단기를 새롭게 제작도입하여 신울부분품의 재단속도를 2배로 높이면서도 그 질적수준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신발창형타생산공정을 보다 현대화함으로써 수요에 따르는 새로운 형태의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신발도안현상모집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24》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운동신발들의 대부분이 이 과정에 개발된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신발들은 형태가 다양하고 맵시있을뿐 아니라 그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방은심
글 김선경

보통강반의 이채로운 풍경

수도의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특색있게 꾸려진 야외빙상장이 매일 저녁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이곳에는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보호벽과 의자 등이 설치되여있고 스케트대여실, 스케트수리실, 의무실을 비롯하여 봉사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스케트를 타고 기세좋게 질주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청춘남녀들이거나 학생소년들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은반우에서 우아한 동작을 펼쳐보이는 처녀들, 제법 기교동작까지 수행하는 나어린 소년들의 모습도 보인다.

한편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듯 두팔을 저으며 스케트를 타고 달리는 로인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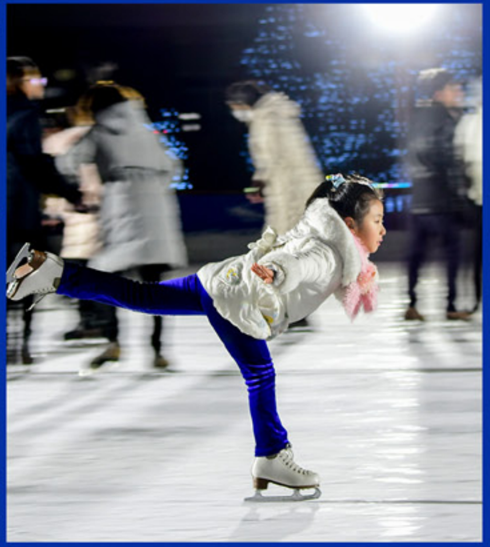
아직은 스케트타기가 미숙한 손님들의 요청을 무랍없이 받으며 친절하게 배워주는 보급원처녀들의 모습도 유정하게 안겨온다.

이곳 보급원들의 말에 의하면 온몸운동인 스케트타기를 정상적으로 하면 심장, 페를 비롯한 장기들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겨울철에 스케트를 타면 튼튼한 체력은 문제없다고 한다.

야외빙상장에 차넘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와 더불어 밤깊도록 잠들줄 모르는 평양의 밤이다.

지금 평양시의 매 구역마다에는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겨울철체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보다 즐거운 휴식을 할수 있는 야외빙상장들이 꾸려졌다.

사진 라평렬, 리명국, 리철진
글 박경철



야외빙상장으로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려명꿩고기료리전문식당

수도 평양의 려명거리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봉사기지가 있다.

꿩고기료리로 소문이 자자한 려명꿩고기료리전문식당이다.

지난해 10월 당창건일을 맞으며 개업한 식당은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며 흥성이고있다.

2층으로 된 식당은 현대적인 시설, 내부마감장식을 식당이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민족적이며 자연적인 환경으로 처리하였으며 훌륭한 봉사조건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

1층식사실에서는 꿩고기탕, 꿩백숙, 꿩고기온반, 꿩고기전골, 꿩고기만두, 꿩고기짜장면을 주식으로 봉사하고있으며 2층식사실에서는 꿩고기쟁반, 꿩고기적쇠구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꿩고기료리들과 청량음료들을 전문으로 봉사하고있다.

손님들이 즐겨 찾는 료리는 꿩고기쟁반, 꿩고기순대후추구이, 꿩고기적쇠구이, 꿩고기완자, 인삼꿩곰, 꿩인삼탕이라고 한다.

꿩고기는 영양가가 높고 약용가치가 있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식당에서 우리 민족고유의 꿩고기료리를 맛본 손님들은 한결같이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 우리 당의 고마운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사진 리철진, 우정국
글 박경철

세계적인 무도관할기구

국제무도경기위원회를 내올것을 발기한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
(1918년-2002년)

국제무도경기위원회 마크와 기발

국제무도봉화대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친선과 협조, 무도의 건전한 발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던 세계무도인들과 애호가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1999년 9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의 발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후원밑에 창립된 세계적인 무도관할기구이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의 활동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제1차총회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제11차총회

1999년 9월 2일 아르헨띠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친선과 협조, 무도의 건전한 발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던 세계무도인들과 애호가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당시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의 발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후원밑에 창립되였다.

창립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브라질, 아르헨띠나, 에스빠냐, 짐바브웨, 카나다, 빠라과이를 비롯한 14개 나라에서 온 20여명의 무도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의 결성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온갖 부정의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무술을 정의의 리념으로 내세우고 제각기 발전하던 여러 무도종목들을 인류공동의 재부로 보존발전시키며 무도의 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있게 한 첫걸음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차의 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총회를 가지고 국제무도경기위원회 규약의 채택 및 수정, 집행위원회의 구성, 국제무도경기의 조직 등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국제적인 무도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국제무도경기대회에서 연설하고있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인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리용선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국제무도경기대회는 세계의 많은 무술가들이 자기들의 힘과 기술, 무술기법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치렬한 마당으로 되고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타이, 에스또니야, 오스트랄리아, 인디아, 벨라루씨, 이딸리아, 우즈베끼스딴에서 태권도, 가라데, 무에이, 판그레이션, 쥬지쯔, 코와트알라미를 비롯한 각이한 무도종목의 선수들을 참가시켜 9차례의 국제무도경기대회를 조직진행하였다.

대회는 2년에 한번씩 진행되며 대회가 진행되기 전에 국제무도경기대회의 시원이 열린 태권도성지에서 무도봉화채화의식이 진행된다.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육체기술적 능력을 지닌 무술가들이 발휘하는 난도가 높은 무술동작들로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는 국제무도경기대회는 세계의 각이한 무술가들이 힘과 기술을 겨루고 무술기법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격전장으로 되고있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국제태권도련맹과 세계가라데동맹, 세계판그레이션 애쓸리머련맹, 세계무에이련맹, 국제젠도련맹, 국제타이취첸협회련맹, 세계유도련맹, 세계쥬지쯔동맹, 세계코와트알라미 및 자체방위련맹, 세계범아마츄어킥복싱협회를 비롯한 19개의 국제무도조직들과 45개 나라에 민족무도경기위원회들을 가지고있다.

신체단련과 자체방위를 목적으로 발생발전하여온 무도는 현재 축구, 롱구를 비롯한 체육종목들과 함께 인기종목의 하나로 되여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있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모든 무도들을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발전시키며 전세계 무도인들의 친선과 협조,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있다.

글 박의철

국제무도경기대회의 경기장면들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옷차림풍습

조선옷차림풍습은 남녀옷, 어린이옷, 신발 등의 전통적인 제작기술과 방법, 차림관습을 포괄한다.

조선옷의 대표적실례는 녀성들이 입는 조선치마저고리이다.

옛 그림들을 통해 보는 조선옷차림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유산들가운데는 조선옷차림풍습도 있다.

오랜 력사를 가진 조선옷차림풍습은 남녀옷, 어린이옷, 신발 등의 전통적인 제작기술과 방법, 차림관습을 포괄한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는 조선옷은 웃옷(저고리)과 아래옷(치마, 바지)으로 나뉘여지며 계절에 따라 덧옷(두루마기, 배자)도 있다.

저고리에 동정과 고름이 있으며 녀자옷은 저고리에 비해 치마가 특별히 긴것이 조선옷에만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이러한 조선옷은 도안과 마름질, 동정과 고름달기, 색조화 그리고 여러가지 의미를 담은 기하 및 자연무늬들의 수놓이와 그리기, 다양한 장식과 치레거리제작 등의 특정한 지식과 기술로 제작한다.

옷감으로는 주로 비단이나 모시, 면 등을 리용한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돌잔치,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민족옷을 입는것을 관습으로 하고있다.

특히 조선옷은 녀성들속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자랑으로 되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높은 뜻에 의하여 조선옷차림풍습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있다.

2024년 12월 4일 빠라과이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9차회의에서는 조선옷차림풍습을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진 방은심
글 김선경

민족의상을 입은 로인들이 휴식터와 유원지들에 모여 즐겁게 휴식하고있다.

조선옷의 부드러운 곡선미는 조선춤의 조형성과 률동성을 한층 돋구어주며 민족적향취가 넘쳐나게 한다.

어린이들도 조선옷을 즐겨 입고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대학생들의 교복으로도 되고있다.

력사유적

보통문

보통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B.C. 277년-A.D. 668년)가 수도성인 평양성을 쌓을 때 중성의 서문으로 세워졌다.
현재의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73년에 고쳐세운것이다.
보통문은 화강암을 다듬어쌓은 축대와 그우에 세운 2층문루로 이루어졌다.
장중하고 안정한 느낌을 주는 보통문에는 선조들의 애국심을 전하는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선조들의 건축술과 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보통문은 나날이 아름답게 변모되는 수도의 보통강반에 옛 모습그대로 보존되여있다.

사진 우정국, 글 박경철

www.dprkportal.kp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minzu.rep.kp www.naenara.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youth.rep.kp www.mediaryu-gyong.com.kp www.mfa.gov.kp www.kass.org.kp www.korean-books.com.kp www.tourismdprk.gov.kp www.korart.sca.kp www.kftrade.com.kp www.korstamp.com.kp www.ryomyong.edu.kp www.moph.gov.kp
www.mirae.aca.kp www.sdprk.org.kp www.yongsaeng.org.kp www.koreanarchi-tecture.com.kp www.korfilm.com.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gpsh.edu.kp www.kiyctc.com.kp www.korelcfund.org.kp www.kza.org.kp www.manmul-sang.com.kp www.cooks.org.kp www.knic.com.kp www.friend.com.kp www.koredufund.org.kp www.ma.gov.kp www.fia.law.kp

© 조선화보사 202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E-mail:flph@star-co.net.kp

ㄱ-25088026547